

안

~지 않다 — 짧은 부정

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앞에 안을 붙이는 것입니다. 간단하지만, 하다 동사는 가운데가 나뉘고, 몇몇 단어는 안 대신 별도의 부정어를 씁니다.

■ 결합 방법

동사 종류	형태	예
일반 동사	안 + 동사	안 가요
형용사	안 + 형용사	안 좋아요
명사 + 하다	명사 + 안 + 해요	공부 안 해요
하다 형용사	나뉘지 않음	안 피곤해요
있다, 알다, 맛있 다	없다, 모르다, 맛있 다 사용	없어요, 몰라요, 맛있어요
긴 부정	-지 않다	가지 않아요

■ 언제 쓰나요

안은 활용된 동사 바로 앞에 와서 그것을 부정합니다: 안 가요, 안 먹어요, 안 좋아요. 의지에 따라 하지 않거나, 단순히 사실이 아님을 나타냅니다.

구조상 유일하게 주의할 점은 하다 동사입니다. 명사 + 하다 형태의 동사에서는 안이 두 부분 사이에 들어갑니다: 공부 안 해요가 맞고, 안 공부해요는 틀립니다.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는 나뉘지 않습니다. 안 피곤해요가 맞는데, 그 안에 분리할 수 있는 명사가 없기 때문입니다.

자주 쓰는 세 단어는 안을 쓰지 않고 별도의 부정어를 씁니다. 있다는 없다, 알다는 모르다, 맛있다는 맛있다가 됩니다. 안 있어요나 안 알아요라고 하면 바로 학습자의 한국어로 들립니다.

■ 예문

- 1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.
- 2 오늘은 학교에 안 가요.
- 3 숙제를 아직 안 했어요.
- 4 이 옷은 안 비싸요.
- 5 운동을 안 좋아해요.
- 6 어제는 안 바빴어요.

■ 비교

-지 않다
뜻은 같지만 무게가 다릅니다. 안은 짧고 대화체이며, -지 않다는 더 길고 조금 더 격식 있어서 글에서 선호됩니다. 어느 쪽이 더 공손한 것은 아닙니다.
안 가요. (구어) / 가지 않아요. (문어 또는 강조)

못 -
안은 하지 않는다(의지), 못은 할 수 없다(능력·상황)를 나타냅니다. 할 수 없었다는 뜻인데 안을 쓰는 실수가 많습니다.
안 갔어요. (가지 않기로 했다) / 못 갔어요. (갈 수 없었다)

없다, 모르다
없다와 모르다는 있다, 알다의 부정형이 아니라 각자 활용을 가진 별개의 단어입니다. 문법보다는 어휘로 익히세요.
시간이 없어요. / 시간이 안 있어요(×)

■ 주의

- ✗ 주말에는 안 공부해요.
○ 주말에는 공부 안 해요.
명사 + 하다 동사에서는 안이 명사와 해요 사이에 들어갑니다. 일 안 해요, 운동 안 해요, 청소 안 해요도 마찬가지입니다.
- ✗ 지금 시간이 안 있어요.
○ 지금 시간이 없어요.
있다는 반대말 없다가 따로 있습니다. 알다와 모르다, 맛있다는 맛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.
- ✗ 어제 바빠서 안 갔어요. — '갈 수 없었다'는 뜻이라면 (×)
○ 어제 바빠서 못 갔어요.
상황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면 못을 씁니다. 안을 쓰면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이 됩니다.